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월 19일(주일) 제1279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020년 예수제자학교(JDS) 훈련생 모집

2월 22일까지...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

(서빙고·양재)

(서빙고·양재·수원)

예수제자학교(JDS)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 서빙고(주간반, 저녁반), 양재(주간반, 저녁반), 수원(저녁반) 온누리교회에서 5개 반이 개설된다.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2월 22일까지 해당 캠퍼스에 마련된 JDS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등록금은 60만원이다.

올해 예수제자학교(JDS)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22주 동안 이어진다. 주간반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다.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개강은 서빙고, 양재 주간반 2월 27일(목), 서빙고 저녁반 3월 5일(목), 양재, 수원 저녁반 2월 29일(토)에 한다.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할 제자를 만드는 훈련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깊이 있는 강의와 나눔, 해외 이웃리치, 성령사역 등이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초청의 글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제자학교(JDS)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0년 예수제자학교 일정〉

	캠퍼스	수업 요일	개강	문의
주간반(여성만 가능) 오전 10시~오후 3시	서빙고 양재	화, 목	2월 27일(목)	박정민 010-9092-6036 최미라 010-9320-4738
저녁반(남,녀모두 가능) 목:오후 7시~10시 토:오후 2시~8시	서빙고	목, 토	3월 5일(목)	박병주 010-8201-8468
	양재		2월 29일(토)	백위현 010-3773-2304
	수원		2월 29일(토)	조대근 010-7702-0419
본 부				신용애 사역자 02-3215-3625 이정아 간사 02-3215-3533

내일부터 '2020년 목회사관학교'

온누리교회 목회자 362명 한자리에

2020년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내일(20일)부터 23일(목)까지 3박4일 동안 강원도 평창에 있는 켄싱턴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올해 목회사관학교 주제는 '온 맘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이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362명(전임 202명, 파트 160명)이 참석한다.

올해 목회사관학교에서는 7번의 강의, 소그룹 나눔, 2번의 특강, 기도

회 및 조별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R.T. 켄달 목사가 한다.

R.T. 켄달 목사는 미국 남침례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후임으로 1977년부터 영국 웨스트민스터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했다. 주요 저서로 <하나님을 열망하다>, <거

룩한 불>, <내일의 기름부음>, <감사해요 하나님> 등이 있다.

온누리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축제다. 국내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사역방향, 동역의 기쁨을 나누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가 18번째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문 40일

새벽기도회는 계속 이어진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어제(18일)까지 이어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종료됐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시 91:1)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29개 해외비전교회와 선교지, 기도처 등지에서는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따라 하나님의 소망, 약속, 보호, 능력, 연약, 명령, 계시, 심판, 추적, 성취, 시험, 사랑과 진노, 일과 안식, 선하심과 연단 등을 주제로 설교했다. 박종길, 이상준, 이기원, R.T. 켄달 목사도 말씀을 선포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차세대, 청년, 선교, 교회, 가정,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박세혁 형제(여호수아공동체)는 "그날그날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많이 얻는 40일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는 계속된다. 서빙고와 양재 새벽기도회는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한다. 부천, 수원, 남양주, 평택, 인천, 양지 새벽 5시 20분, 대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 토요일 6시, 강동 6시 20분에 진행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요한복음 6:1~15(1월 20일 본문)

본문 주제: 한신(주님을 향한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과 확실한 믿음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영상제목: 습관의 능력_크레이그 그로셀 목사

내용: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습관을 꾸준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실

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적용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최고의 헌신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 QR코드



* 다음주(1월 26일) 신문은 설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는 온누리신문(www.onnuri.org)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 2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존재이유

온누리교회가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표어로 내걸고 2020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실천하기를 독려하고자 신년기획 코너를 마련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이웃사랑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이 동자동 쪽방촌 주민을 방문해 섬기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갈 5:14).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1).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약 2:8).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요일 2:4).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못 박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응답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작은 실천이 이웃들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헌금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 않다. 만약 이

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돈도 많이야 하고, 시간도 많이야 하고, 거창한 마음까지 있어야 할지 모른다. 단호하게 말하건대 이웃사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다. 허정우 성도(성동광진공동체)와 황시영(19세)군의 사례를 보면 크리스천들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허정우 성도는 지난해부터 서울역희망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있다. 서울역희망공동체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의 생활지원을 돕고 있는 사회선교팀이다. 허정우 성도가 서울역희망공동체에서 쪽방촌 주민들을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단순했다.

“제가 대기업에 다녔는데 승진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치열함이 너무 컸어요. 남들과 비교해가며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2018년 퇴사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서 회사 다닐 때 가질 수 없었던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회사 다닐 때는 못해본 봉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정우 성도는 쪽방촌 주민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주민들의 작은 변화가 허정우 성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인 셈이다.

“처음 쪽방촌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마음

의 빗장이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문했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에게 불행했던 과거사를 털어놓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답수룩한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희가 오기를 기다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이 이야기를 꺼내면 듣지도 않더니 지금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허정우 성도는 아주 단순한 계기로 이웃사랑을 시작했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일상이 되었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꿈도 생겼다.

“사실 저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숙제 같고 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혹이 너무 많고, 잘 할 수 있을까,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이웃들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제 가족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는 습관까지 생겼어요. 사실 제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작은 실천이 이웃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황시영 군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고 인사했다. 황시영 군은 할머니(97세)와 아버지와 함께 보광동에서 산다. 엄마는 없다. 황시영 군의 기억에는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황시영 군이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이다.

황시영 군은 고령의 할머니, 바쁜 아버지 사이에서 외롭게 자라야만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런데 늘 곁에 있어주던 할머니가 세월의 흐름까지 거스를 수는 없었다. 나이가 더 들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외출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어릴 때는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곤 했는데, 할머니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로는 그나마 가던 교회에도 발길을 끊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시영 군의 집에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찾아왔다.

“할머니가 서빙고 이웃사랑팀의 방문을 너무 즐거워하세요. 언제 또 오나 하고 기다리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할

머니와 아버지 안부를 물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할머니 건강도 챙겨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서빙고 이웃사랑팀의 꾸준한 방문이 황시영 군과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선물은 그게 다가 아니다. 서빙고 이웃사랑팀의 추천으로 황시영 군이 서빙고 권사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됐다. 황시영 군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은 덤이다.

“저희 가족들을 계속 찾아와 주시고, 챙겨주시고,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황시영 군은 온누리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할머니와 저처럼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온누리교회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와주십시오.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없었다면 할머니와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빙고 이웃사랑팀처럼 저도 커서 기부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을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이웃사랑은 돈이 많아야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하는 일이 아니다.

허정우 성도와 황시영 군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결코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이웃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다. 찾아주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래줘야 한다.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고, 말벗이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면 된다.

새해에는 작지만 큰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요 13:35).

문의: 02-3215-3434, 3436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들도 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17:20~26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기도를 들여보면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기도는 예수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요, 기도에 담겨 있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기도하셨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고, 믿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20절).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로 말하면 미래의 제자들이고, 이 시대 우리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하여 미래의 제자들, 곧 지금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반대와 핍박과 훼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당시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가 교회 전체의 기도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미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믿게 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먼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됨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개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부름 받아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실까요?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 믿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목적은 선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들을 사용하신 역사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했고,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먼저 선택받은 이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의 선교적 기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훌륭한 선교학자의 통찰력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변의 세상을 정복하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며,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역이 이주민과 난민사역입니다. 전 세계에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고국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선교적 기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정결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 만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율법의 전통에서 내려온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용하려고만 하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모습과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온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세례를 받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선교, 하나님 선물의 통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신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행 11:17).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자신만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기에도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만난 이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찾아갈 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선물이 아니요, 내가 선물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선교는 선물을 주는 이들에게 변화시킵니다. 선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변화시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고넬료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다른 차원의 회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끊임없이 회심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통로가 되어왔던 지난 역사에 순종하면서 계속 회심되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선교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생명력은 선교에 순종해왔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의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라는 선교기관의 대표님과 조찬을 했습니다. 그분이 “많은 교회가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데 온누리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탈권위적인 문화, 수평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교에 헌신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국내 170개 팀 5,285명, 해외 189개 팀 3,411명 등 총 359개 팀 8,696명입니다. 성인공동체도 많이 참여하셨지만 대다수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참여하면서 배웁니다.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설교에서, 교제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선교현장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책 읽어주는 목사

감정의 민주화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권수영 저 | 그리고 책 | 12,000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분노공화국 같다. 우리는 분노와 짜증과 같은 감정을 불편하게 여기고 나쁘게 생각한다. 그 불편한 감정의 배후에 한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경우는 그 불편한 분노 감정의 배후에 정치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느끼는 분노, 혐오와 같은 감정의 배후에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것일까?

또한 분노, 미움, 원망과 같은 감정은 단순히 나쁜 감정인 것인가?

권수영 교수의 저서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감정도 나쁜 것은 없다. 모든 감정은 우리 내면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일 뿐이다. 저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리처드 슈왈츠 교수가 제시한 ‘내면가족시스템학’을 가족주의 문화에 젖어 살아온 한국인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사용한다. 슈왈츠 교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욕구, 충동 등과 같은 요소들을 마치 가족과 같은 작은 인격체로 보았다. 우리의 신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듯이 마음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느끼고 접하는 감정인 분노, 미움, 원망, 슬픔, 불안, 두려움, 수치심 같은 정서들은 모두 시스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감정반응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강경과 감정과 온건과 감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강경과 감정은 분노, 짜증, 원망, 미움 같이 강렬하게 표출되는 감정이다. 반대로 온건과 감정은 웬만하면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인데 슬픔, 외로움, 수치심, 불안 같은 감정이다.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강경과 감정이 쉽게 표현된다. 그러나 온건과 감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저자에 따르면 온건과 감정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감정이다. 슈왈츠 교수의 경우 유명한 대학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늘 대중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소인격체로 여기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그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뭔가를 발표하다가 작은 실수를 하자 발표를 듣던 친구들이 깔깔거리면서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이 경험은 어린 시절 기억 중에서 그가 가장 지우고 싶었던 최악의 일이었다. 그 사건 이후 자신이 겪은 수모와 창피와 수치심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마음속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학창 시절 내내 발표 할 때마다 혹은 대학교수가 되어 강연 할 때 마다 그때의 수치심을 안전하게 지키 내기 위해 강경과 감정인 지원군이 등장하는데 바로 두려움이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강경과 감정에 몰두하면서 어린 시절 치욕스런 기억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경과 감정은 온건과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구원병이다. 자주 분노하고 짜증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과거 어떤 상황에서 감당하고 견디기 힘든 모멸감이나 수치감의 경험에 있다. 그것을 다시 마주하는 것과 기억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강경과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강경과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이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감정의 민주화’라고 하고, 감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사회나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이유는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리가 쫓겨 숨겨두고 회피했던 슬픔, 불안, 수치심, 비참한 감정의 출현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경과 감정의 표출에 담겨있는 다양한 내면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시스템 측면에서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과 원망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타투(문신) 왜 하면 안 되나요?”

답: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신이나 타투(바디피어싱 포함)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만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건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젊은 세대들에게서 몸에 문신을 하는 ‘타투(Tattoo)’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1800년대 문신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것은 일탈내지는 범죄자의 무늬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심리학자 루젤레 나우데(Luzelle Naude)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타투는 나를 위한 하나의 매력적인 예술, 소속감과 자유를 표현하는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문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문신은 대인관계에 선입견을 가져다주고, 한 번 새기면 지우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

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독교인들도 타투를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야 하는지 혹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타투와 문신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문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28).

구약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행하던 타투나 문신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질서에 반하는 행위였기에 율법의 조항에도 분명하게 포함시켰다. 하지만 구약과 달리 신약성경에 오면 문신에 대해 금하고 있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혹자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다르게 해석되어 문신을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술과 담배, 도박, 약물중독처럼 구체

적인 죄 목록이나 언급이 없기에 성경이 이를 금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과 같은 견해이다.

과연 성경이 문신이나 타투에 대해 금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까? 신약성경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허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내지는 선부론 해석학적 오류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리는 신약에서 온전히 성취되면서 포괄적인 기독교윤리가 제시되어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 12:2)”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한다. 베드로전서 3장 3-4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라고

기술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신이나 타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만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묵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타투와 문신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지만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영혼에 더 많은 관심과 경건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떠올리면 눈물부터 나는 그 이름 ‘장기려 박사’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삶으로 몸소 보여준 이들이 많다.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의사로 불린 장기려 박사도 그렇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고, 병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처럼 일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한 인물이다. 한평생 이어진 장기려 박사의 헌신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말고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의료복지혜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어서 간단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하고 헐벗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바쳤다. 그의 생전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환자가 돈이 없어서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 불쌍타.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장기려 박사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당시 최고 외과의사였던 백인제 교수의 애제자일 만

큼 실력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가 엄청난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교수직과 대형병원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당시 가난한 환자들이 많았던 평양의 기흥병원을 선택했다.

장기려 박사가 남한(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장기려 박사는 1950년 12월 전쟁 중에 다른 가족들과 헤어지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왔다. 부산으로 피난 온 장기려 박사는 가족들과 헤어진 슬픔 속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당시 전염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창고를 빌려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으로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나무판자를 수술대 삼아 만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장기려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환자들을 정성으로 돌봤다. 나중에는 UN에서 지원해준 대형 천막 세 개를 각각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로 구분하고 ‘천막병원’을 만들었다. 천막병원에서 6년 동안 매일 1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병원이 커지면서 무료진료가 불가능해지자 장기려 박사는 국내 최초로 민간의료보험 ‘청십자의료보험’을 만들었다. 환자들이 적은 회비를 내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다. 훗날 이 제도가 국민의료보험의 참고용이 되었다.

장기려 박사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병원은 늘 붐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려 박사는 늘 청빈한 삶을 살았다. 평생 병원 옥

탑방에서 생활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다. 장기려 박사의 선행은 끝이 없었다. 돈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는가 하면 영양실조였던 환자에게는 처방전으로 생닭 두 마리 값을 줬다. 돈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을 쓰고, 60년 동안 통장에 모은 재산을 간호인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는 매일 밤마다 청진기를 대고 오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평생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던 그는 1995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 일상에서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한 사연들을 찾습니다.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온누리신문에 실어드립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직접 만드는 ‘가족예배송’과 ‘가족일기’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찬양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직접 찬양을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다. 이른바 ‘가족예배송’을 만드는 것이다. 직접 만든 가족예배송을 가족들과 함께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정예배가 풍성해진다.

가족예배송을 만드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가족만의 이야기를 담은 가사를 적어서 음을 입히면 된다. 음악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미 존재하는 찬양을 개사해서 불러도 되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음악적 역량이 있는 이가 있다면 새로운 찬양을 만드는 것도 좋다. 하지만 가

족예배송은 기존의 찬송가, CCM을 개사해서 부르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가족예배송 가사를 적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를 담아내는 게 포인트다. 우리 가족만의 시편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부부의 만남과 결혼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가사로 담아낼 수 있고, 자녀가 탄생할 때 느꼈던 벅찬 감동과 감사를 찬양으로 녹여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순간 등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가족들이 주인공이 된 가족예배송을 만들면 한평생 두고두고 부르는 가장 의미 있는 찬양이 될 것이다.

사건을 중심으로 가정예배송을 만들 수도 있다. 온 가족이 올해 여름 다녀온 휴가지에서 만난 하나님, 가족구성원들의 기도제목 등을 적어서 가족예배송을 만들 수도 있다. 가족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가정예배송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

가족일기는 가족예배를 풍성하게 돕는 또 하나의 도구다. 보통 일기는 혼자 쓰기 때문에 가족일기가 생소할 수 있다. 가족일기는 가족구성원이 가족예배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나 가족의 성장과정 등을 기록하는 가족연대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교환일기처럼 한명씩 돌려가며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부모들이 써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 가족형태나 자녀의 연령에 맞춰 가정일기를 쓰면 된다. 분량은 몇 줄 정도면 충분하다. 수년이 흐른 뒤 온 가족이 모여 그때 쓴 가족일기를 펼쳐놓으면 밤새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조금은 유난스럽고 번거롭더라도 가정예배가 자리 잡기 전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본문: 마태복음 8장 5~8절

찬양: 예배자입니다

메시지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하여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하인이나 노예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로마인 백부장이 유대인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놀라운 결정입니다.

첫째, 믿음은 희생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을 위해 구합니다. 이것이 희생의 의미이며 능력입니다. 부모님이 아프거나 친구가 아팠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적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 백부장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순간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희생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백부장 같은 가정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대부분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이뤄집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현실에서 어려운 결단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신분을 앞세우지 않았고, 더 겸손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2020년을 시작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나요?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특별한 기도제목은 무엇일까요? 백부장 같이 하나

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예수 사랑해요

*오늘(1월 19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YouTube 채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직접 가정예배 Live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eople

만나고 싶습니다

“고향에는 언제 돌아갈거니?”

故 김사무엘 목사의 질문을 피하던 한 미얀마인 청년이 있었다.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비전을 얻고 망명했던 인도로 돌아갔던 청년이 2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것도 목회자가 되어서 말이다. 그 주인공은 리안 목사다. 리안 목사는 현재 호주 멜버른에서 성도 1천3백 명이 모이는 빅토리아친교회를 섬기고 있다. 리안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미얀마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25년 만에 온누리교회 방문한 리안 목사의 간증



“게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누리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그렇더군요. 온누리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요.”

당시 온누리교회 미얀마어예배는 뜬재우 목사가 섬기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연이 닿아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리안 목사는 서울근교 공장에서 일했다.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일에 쉬는 것을 상상조차

라 위해서 일해야지’라고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언젠간 가겠조’라며 넘기곤 했는데 어느날 김사무엘 목사님의 바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비전이 생겼어요. 미얀마에 돌아가면 죽는 거나 다름없으니 인도로 갔어요.”

또 다른 사역지 호주를 가다

1997년 한국을 떠나 인도에서 생활하던 리

있었다. 오죽했으면 교수들이 리안 목사의 안색을 보고 꼭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오전에 수업이 있으면 오후에 일하고,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오전에 일했어요. 집에는 미얀마인들이 가득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찍 나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집 근처 쇼핑몰 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하루는 일하다가 수업에 늦어서 눈에 띄는 화장실에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화장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 교수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더라고요.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평평 우시면서 자기 연구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미얀마 복음화 위한 선교를 꿈꾼다

2006년 리안 목사는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리안 목사의 소문난 섬김이 입소문을 탔다. 그 덕분인지 빅토리아친교회가 나날이 부흥했다. 지금은 성도 1천3백여 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 빅토리아친교회는 선교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섬기고 있고,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6개 지역을 섬기고 있다. 신학생 18명도 후원하고 있다. 리안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미얀마 복음화를 위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가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미얀마인들을 섬기는 선교를 한다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일대일제자양육도 우리 교회에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리안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저처럼 한국을 찾은 수많은 이주민들을 계속 섬겨주시고, 그들이 돈 대신 생명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주시고.”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저처럼 한국을 찾은 수많은 이주민들을 계속 섬겨주시고.”

호주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19시간 만에 한국에 왔다. 한국은 25년 전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눈부시게 성장해 있었다. 온누리교회부터 찾았다. 리안 목사에게 온누리교회는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제가 몹시 그리워했던 그대로 늘 포근한 곳이에요.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짧게나마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인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망명...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된 한국

리안 목사가 청년시절일 때 고국 미얀마는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교사였던 리안 목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열심히 민주화운동을 하던 리안 목사는 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도로 망명했다. 그리고 1994년 한국에 왔다.

“미얀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도로 피신했는데 인도에서도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인사들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인도에서 머무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미얀마에서의 민주화운동, 인도로의 망명, 보장되지 않은 신분 등 불안한 삶 속에서 리안 목사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오직 교회뿐이었거든요. 당시 구로에서 온누리M미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다시 와서 성경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갈급했던 시절이었습시다.”

리안 목사는 故 김사무엘 목사에게 일대일 제자양육과 BEE성경공부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꾸준히 훈련을 받았는데 리안 목사의 삶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았다. 변화는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됐다. 공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리안 목사는 선임근로자 대우를 받았다. 동료들에게 자신의 보너스까지 나눠주며 생산량을 높이자 공장 사장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리안 목사는 미얀마어예배에서도 리더로 쓰임 받으면서 온누리교회 선교의 비전을 보고 배웠다.

“故 김사무엘 목사님이 저만 보면 ‘고향에 언제 갈 거야? 리안 너도 결혼하고 하나님 나

안 목사는 2000년 호주로 향했다. 호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망명한 미얀마인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당시 리안 목사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심보다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미얀마인들을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두 아이를 둔 리안 목사 가족은 작은집을 임대해서 살았는데 그 집은 미얀마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나 다름없었다.

리안 목사는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 13명과 작은 가정예배를 먼저 개척했다. 농장에서 일하면서 틈 날 때마다 미얀마인들의 정착을 도왔는데 그 일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정착 본인 일에 소홀해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어찌됐어요. 제가 호주를 잘 아니까 미얀마인들이 집 구하고, 학교 등록하는 등의 일들을 도와줘야지요. 도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휴가를 쓰면서까지 도왔어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러다 농장주에게 들켜서 해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해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침에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리안 목사의 고생이 배가 됐다.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신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무조건 일했다. 리안 목사의 차에는 늘 작업복과 공구가 준비돼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설 · 감 · 사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하며 가족들의 특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보다 감동적인 명절이 될 것입니다.

못하느냐는 것이며(25절) 둘째, 축복은 항상 승자가 패자에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승자인 야곱이 패자인 천사에게 축복을 요청하느냐는 점입니다(26절). 이 두 가지 물음은 분명 씨름하던 중에 찾아온 커다란 인식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천사에 의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순간 야곱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자신이 누구이며,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처절하게 울고 회개하며 축복을 간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호 12:4). 지금까지 야곱은 한마디로 ‘이겨먹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야곱의 인간적인 자기방식과 본성을 꺾으시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다”: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천사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야곱은 “야곱이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27절).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의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항상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악착같이 이기려 했던 야곱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진실한 자기고백과 돌이킴이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 ‘날이 새기 전에’ (24, 26절) 반드시 있어야 했던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천사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28절)라며 이름을 바꾸면서 축복을 전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정체성, 삶을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기다, 주도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아니라”(28절)는 언급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겨온’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다스리며, 이기는’ 이스라엘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야곱의 삶은 이전의 야곱과는 달리 야곱도 이기고, 예서도 이기며, 모두가 화목하게 이기게 되는 참된 승리의 삶이 됩니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여서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악착같은 삶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치시면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꺾으셨습니다. 야곱은 처절한 눈물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간됨을 다해 혼자만 이기려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기시는 이스라엘이 되어 만민이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새해,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참되고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새550, 통248).....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32:22~28.....	가족 중에서
설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약한 나로 강하게(경배와 찬양 197).....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들어가는 말

진정한 새로움이란 본질적 차원에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압박감 나루터에서 천사와 야곱이 씨름한 이야기의 본질은 표면적으로 형 예서와의 갈등해결이 아니라 야곱이 평생 안고 살아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었습

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2020년 새해 우리 모두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새로움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압박 나루 씨름의 두 가지 이상한 점은 첫째, 신적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인간 야곱을 이기지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80:1~3.....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새438, 통49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50:15~21.....	가족 중에서
설교	위로와 구원과 섬김의 삶으로.....	설교자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새212, 통347).....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위로와 구원과 섬김의 삶으로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될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고인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

겨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위로하는 삶으로”(19절):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요셉의 복수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요셉에게 간곡히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위로함

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 후 남은 자들의 삶에는 슬픔과 함께 근심과 염려, 때로는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서로에게는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20절):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이유를 형제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곧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인이 떠나신 후 남겨진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란 단순히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곧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마저 신실하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으로”(21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한 위로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간증이나 고백으로 멈추지 않았습

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헌신을 약속하며 실천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은 어린 시절 꾸었던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는 꿈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곧 진정한 승리자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 10:45).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나가는 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후 남겨진 자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며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헌신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1월 11일 토요일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야고보서 1:17, 요한계시록 21:5~7

이재훈 목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며(약 1:17),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계 21:5).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낡아 해진 옷을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시 102:25~27).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헬라어는 ‘옛것에 반대되는 새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새것’을 뜻합니다. 하

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거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산으로 내려오시고, 레위기에서는 장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즉 땅에서 가장 누추한 곳,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곳 음부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음부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을 건져 올리려면 누군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계 21:5).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땅은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벧후 3:13).

지금은 죄가 지배하는 하늘과 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심판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새로운 땅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계 21:7). 우리는 인생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 승리는 죽음 앞에서 확인됩니다. 패배자로 죽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될 때 죽음과 사단과 죄를 이기고,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승리자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음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뤄지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소망을 품을 때 이 땅의 죄와 죽음,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 1월 13일 월요일

은혜의 보좌(Throne of grace)

히브리서 4:16

R.T.켄달 목사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히 4:16).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그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필요와 양식보다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 경 낙심한 히브리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 다. 히브리인들이 낙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되고 좌절하고 두려워질 때 누구를 찾

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히 4:14).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또 다른 지위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과거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중보기도 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다 제사의 형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본인의 실수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두

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 1월 14일 화요일

기도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누가복음 1:13

R.T.켄달 목사

천사가 당신을 찾아와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라는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자 쉽사리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라는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삶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둘째, 응답된 기도의 형태는 우리의 준비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가라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가라는 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잠시 오래전 기도제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분당 스크린에 여러분의 이름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표시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 수치를 느끼실 겁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아오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의 형태는 우리의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스라엘에 적용됩니다. 랍비들은 메시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요청해도 됩니다. 치유, 월급, 승진, 집 등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때 정확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 1월 15일 수요일

스데반의 기름부으심

사도행전 6:1~15

R.T.켄달 목사

초대교회는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명의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부으심에 필요한 것은 지혜도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의 기름부으심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

다. 정말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의 기름부으심을 원한다면 스데반처럼 성경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 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적절한 때에 성령

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큰 핍박도 견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스데반에게 기름부으심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스데반의 기름부으심이 임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만 하고 박수만 치지 않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기름부으심은 큰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부으심이 크면 고난도 큼니다. 핍박과 고난은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에게는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처럼 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물었습니다. 스데반의 첫마디는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스데반의 기름부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한 스데반에게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이 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성령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스데반의 기름부으심에 대한 비밀입니다.

◆ 1월 16일 목요일

겸손의 능력

누가복음 14:7~11

R.T.켄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신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요구하며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겸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누가 인정받고, 누가 찬사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정과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성품, 신앙의 연조나 깊이 등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갈망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

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찬사 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으셨을 때 모세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 1월 17일 금요일

신비로운 고난의 이유

골로새서 1:24

R.T.켄달 목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가장 큰 환란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누가는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대해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위해서도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고난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축복의 유업을 깊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분량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당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평으로 고난에 임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면서 고난에 참여할 사

람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나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집회에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고 간증할 때 사람들이 어서 예수를 믿고 싶다고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삶을 마치고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할당된 고난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할당된 돈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찾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견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인들인 우리에게 할당된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사시겠습니까? 받지 않고 불평하면서 지내겠습니까? 욕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천국의 천사들이 욕의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불편해 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 받을 합당한 자로 부름 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뵈 때는 이 세상에서 겪은 많은 고난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임 기관장 인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한충희 목사

“나라의 대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한충희 목사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한 목사는 “선교는 어떤 상황에서든 멈춰서도 안 된다”며 “전 세계 복음화”라는 소명을 감당하도록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해외 선교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한충희 목사와의 일문일답.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선교는 온누리교회의 심장이자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향적 온누리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총괄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큼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이라 생각하고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 외교에서 선교로 영광스러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비전을 도전하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올해 포부를 밝혀주시요.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첫째, 선교의 본질과 핵심이 이어지고 심화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본질과 핵심은 영혼 구원, 교회개척, 제자양육입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입니다. 둘째, 협력과 융합입니다. 온누리교회에는 2000선교본부, Acts29비전발리자, 온누리M센터, CMN(의료선교팀), CGNTV, BEE Korea 등 선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이 많습니다. 선교기관과 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온누리교회에는 일대일제자양육, 아버지학교 등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융합해서 선교지에 투입하고, 선교지사



한충희 목사

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상황과 적실성입니다.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제적인 이슈와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접촉해야 합니다. 이란사태, 난민 문제, 기후변화 문제, 지역 간 분쟁 등 다양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선교지와 접촉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과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정신이 온누리교회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더욱 축복하고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전 세계 복음화’라는 소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0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협력위원 40명 참석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20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17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개최됐다.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29개 해외비전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임목회자, 이재훈 담임목사, 비전교회 협력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2020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1부 예배, 2부 지역별 모임 및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외로운 환경에서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서 “모든 해외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현목 목사(오 클랜드 온누리교회)는 “오랜만에 동역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면서 동지애를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19일) 주일예배에서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교회 헌당

르완다 무하지교회에서는 32명 세례

NGO 더멋진세상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에 교회를 헌당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12월 25일)에 교회 헌당식을 개최했다. 무슬림 공동체인 국생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현지 목회자와의 협력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아프리카 르완다 무하지 교회에서는 32명이 세례를 받고 53

명이 입교했다. 무하지교회는 2017년 성탄절에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렸다.

NGO 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은 “복음이 없던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이 섬기는 모든 주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수사랑부 운전봉사자 모집

25인승 미니버스 운전면허 소지자

발달장애청장년예배공동체 예수사랑부에서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다. 그룹홈(용산구 가브리엘의집) 장애인 청년들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봉사이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오후 1시이다. 운전 소요시간은 약 50분이다. 오전과 오후 중에서 1회만 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 010-3474-7635

2020 FCA 스키 캠프

1월 30일~2월 1일까지

FCA(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와 온누리교회 전도본부, 차세대사역본부가 함께 ‘2020 FCA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토)까지 2박3일 동안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전 국가대표 스키선수 김경희, 휘닉스파크 아카데미 전문 강사들이 지도한다. 문의: 02-3215-3214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4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일(토)부터 29일(토)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 또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2-2182-9100

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CGNTV 세라핌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이다. 오디션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카페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5958-5583

서빙고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서빙고 상담센터에서 2월 4일(화)까지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대상이다. 지원서(서빙고 상담센터 양식),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

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을 제출해야 한다. 비용은 한 학기당 30만 원이며, 총 2학기 진행된다. 매주 수피비전과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793-2998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932	이계학	도곡	1138948	함경진	동작	1138969	김유림	여호수아	1138984	이정희	송파A
1138933	유경리	송파A	1138950	윤승완	동작	1138970	우진희	여호수아	1138986	홍성필	한강
1138934	정태원	송파A	1138951	윤지원	SNS	1138971	송재영	평택	1138988	최세영	하북
1138935	김민지	여호수아	1138952	박 휴	SNS	1138972	김호선	여호수아	1138989	강미진	한강
1138936	김세정	부천 믿음	1138953	엄지혜	SNS	1138973	최은지	여호수아	1138990	김서우	강남E
1138937	박정진	서대문	1138954	이건희	SNS	1138974	김수진	여호수아	1138992	이영래	인천 서누리
1138938	김세훈	고양은평	1138955	이준상	SNS	1138975	안세훈	여호수아	1138996	김은현	동작
1138939	김경민	J4U	1138956	양한얼	SNS	1138976	김대영	여호수아	1138997	김정진	양천
1138940	유종명	J4U	1138957	김민선	SNS	1138977	오찬희	여호수아	1138998	정혜진	갈렐
1138941	강석민	J4U	1138960	김선곤	인천 동누리	1138978	김수정	여호수아	1138999	송지은	S브릿지
1138942	허호선	여호수아	1138964	민정섭	가정사역	1138979	우하림	여호수아	1139000	Krystal Hillbush	OEM
1138943	한가나	Pole2	1138965	양주아	가정사역	1138980	이다원	여호수아	1139001	박성은	W
1138944	강은정	대전 드리머스	1138966	신현경	강남B	1138981	박수현	여호수아	1139002	최제인	수원 SEED
1138946	고범석	강서	1138967	이 경	강남A	1138982	정규섭	마포	1139003	김영주	푸른누리
1138947	이지원	한강	1138968	오윤경	인천 동누리	1138983	김정희	인천 동누리			

■ 서빙고 나눔장터 소개



/ 서선교 팀장(강서공동체)

나눔장터와 초대교회

서빙고 나눔장터는 1998년 3월 1일 나눔을 목적으로 개장했다. 지금까지 물건판매 금액들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선교지 등으로 흘러갔다. 성도님들이 기부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단돈 천원 혹은 이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가장 값비싼 물건도 오천 원을 넘지 않는다. 판매대금은 이웃사랑을 위해 쓰인다.

나눔장터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실천하는 장터이다. 성도들이 내어 놓는 물건과 사랑의 마음들이 나눔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다. 주변 이웃을 돕고,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나눔장터의 큰 목표이자 원칙이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온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대로 나누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한다.

그동안 나눔장터는 유무상통했다. 나눔장터에 기증하고 방문한 성도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었으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봉사를 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주일이면 나눔장터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의 미소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각 가정마다 잠자고 있는 옷, 책, 사용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나눔장터의 존재 이유가 되곤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눔장터가 성도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고마운 마음이 모여서 교회의 덕을 쌓는 일에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네 것과 내 것이 없음을 매일 느낀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눔장터에 기부되는 물건들이 줄고 있다. 나눔장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부가 없다면 나눔장터는 지속될 수 없다. 나눔장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에 있다. 이천만광장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2020년 새해의 시작을 묵은 짐들을 정리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문의: 010-8752-2222

■ 수원 행복반 수료 간증



/ 김승현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비밀

어렸을 때 선생님과 가족에 대한 배신감으로 시작된 내 안의 미움이 점점 여러 관계 속에서 조롱당하는 느낌으로 변했고, 급기야 나의 영을 병들게 했다. 내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내의 권유로 행복반을 시작했다. 행복반 과정은 나의 미움이 부모와 형제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서 온 것임을 알게 해주었다. 그 미움의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으로 녹이고, 흘리신 피로 씻어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동시에 나의 나약함과 죄악 된 마음을 깊이 회개했다.

행복반을 들을 때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왔다. 어머니가 유방암 2기부터 치료를 거부해오셨으나 결국 통증을 못 이기고 도움을 청해오셨다. 그 치료과정은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과 재정의 압박을 가져왔다. 또 아내가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었다. 큰형 가족이 자동차 사고를 겪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출장을 15일 이상 다니는 등 격무에 시달렸으나 상사들의 성에 차지 않아 업무평가를 평균 이하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행복반을 먼저 수료한 아내는

나를 깊이 격려하고 큰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행복반 훈련 기간에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한꺼번에 닥친 여러 고난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감사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참된 승리가 되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를 고난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도움을 청했고, 그런 내게 주님은 늘 도움을 주셨다. 영적인 평안을 주셨고, 참된 동행자가 되어주셨다.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나에게 하나님은 결혼 초부터 7년 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 귀중한 은혜까지 체험하게 해주셨다.

깊은 용서와 회개의 혜택보다 더 큰 수확은 자유함이었다. 그동안 상사가 내게 해왔던 조롱 등을 관용하는 여유가 생겼고,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 마음에 있었던 미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제는 주변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겼다. 나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섬김을 통해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리고 싶다.

■ 대청 크리스마스 블레싱 간증



/ 이기문 자매(SNS공동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웅도와와 첫 만남은 지난해 8월 여름 아웃리치였다. 당시 축호전도에서 나는 이단으로 인해 외아들의 가정이 처참히 파괴된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집의 어머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아버님의 반대로 못 가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졸곧 웅도의 복음화와 그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왔다. 작년 10월 두 번째 방문에 이어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역을 통해 웅도에 세 번째 방문하게 됐다. 웅도에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아버님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셨다는 문클함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마쳤다는 뿌듯함이 밀려오면서 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다음 행선지인 앞집에서 나의 발걸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지난 축호전도 때 나를 매몰차게 문전박대 했던 아주머니 덕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도 마당에 아저씨가 혼자 일하고 계셨다. 아저씨께 열린 선물을 안겨드리고는 아주머니가 나올세라 현관을 주시하며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하고 물으니 “교회 갔어요”

라는 믿기지 않는 답이 돌아왔다. 다음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웅도교회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내치셨다며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이제 4주차 교인이 되었고, 친구도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셨다. 그 아주머니의 파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그때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했다. 사실 나는 그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침을 당했을 때 그 가정을 포기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수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통해 많은 씨앗을 뿌리게 하셨다. 무엇보다 5살 때부터 웅도교회를 다니면서 장성하여 지금은 여전한 전도사님이 된 그 아주머니의 파님이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었다.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통해 주님께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전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 대청 사랑애틀 나눔 후기



/ 장혜연 자매(요셉공동체)

따뜻한 기억을 선물 받다

대청 사랑애틀 나눔 사역은 올해로 5년째가 됐다고 한다. 나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다. 요셉공동체 선교그룹에 속해 있기도 했고, 나눔사역을 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랑애틀 나눔 사역은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쌀과 반찬, 생활용품 등을 전달해드리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연말을 홀로 보낼지도 모르는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막상 어르신들의 집 앞에 도착했더니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던 나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르신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걱정을 한 가득 안고 문을 두드렸다. 집 안에서 나온 어르신들은 내 걱정과 달리 너무 다정한 분들이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과일이나 주스 등을 챙겨주시며 “추운데 고생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해주셨다. 따뜻함을 전해드리러 간 자리에서 오히려 따뜻한 기억

을 선물 받았다.

이번에 방문했던 어르신들 가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 자녀들이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어르신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나서며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기도를 해드려도 괜찮은지 여쭙 봤다.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던 분들이셔서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드릴 수 있음이 참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르신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 드렸던 대로 응답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어르신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끼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21세기 선교는 교육선교다!



남명현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2000선교본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세운 예수의 제자 삼는 학교가 800개가 넘는다(2014년 한국선교연구원). 교사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유초중고교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선교사는 대학에서 가르친다. 학위가 없어도 수많은 전문인들이 상담사, 디자이너, 컴퓨터, 간호사, 의사, 교무행정, 건축가, 시설 전문가, 기술사 사감, 영양사, 사서, 비즈니스 맨, 연구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여러 선교 중에서 교육선교는 대단히 매력이 있고, 효과적인 사역이다. 학교는 사고 형성에 있는 젊은이들과 적게는 3년, 길게는 6년 동안 부대끼며 복음을 가슴 깊이 심어놓는 황금어장이다. 오랜 세월 선교를 했어도 열매가 미미한 국가들이 많다. 미얀마만 해도 선교 150년이 넘었지만 주종족인 버마족에는 복음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소수민족에만 머물러 있다. 교육선교는 학교를 세워 주종족 상류층 자녀와 부모에게 다가가갈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이다.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특히 대학은 한 국가의 미래를 바꿀 인재와 정신을 길러내는 전략적 요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근대 선교가 시작된 곳은 독일 경건주의 중심지 할레대학이었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 포트윌리엄 대학에서 30년 동안 봉직하며 수많은 학교를 설립한 교육선교사였다. 현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선교도 1806년 ‘건조터미 기도회’를 통해 선교 불씨를 일으

킨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 5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는 교육선교가 선교의 중요한 축이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의 각 성마다 기독교대학이 세워졌다. 일본, 인도, 조선, 중동의 터키, 시리아 등에도 대학이 세워졌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선교사들이 선배들의 선교방향을 잊고 대학 대신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세우면서 대학이라는 전략지역을 상실했다. 선교계 거장 랄프윈터는 2007년 아시아 선교학회에서 ‘서구 교회의 12가지 실수’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지난 50년 동안 대부분의 미국 선교단체가 선교지에 대학교를 단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 교육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부분 선교지 국가(개발도상국)들은 한국으로부터 교육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일인당 소득 67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뤘던 저력이 한국의 넘치는 우수한 교육자원에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 특히 걸프지역에 있는 9개 국가 185개 대학에서는 한국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높은 연봉에 교수로 초빙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놀라운 기회를 한국 교회의 전문인들에게 알리는 교육선교포럼이 오는 2월 15일 열린다. 일터 겸 선교의 장을 기대하는 청년부터 현직 교사와 교수,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교육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시대이다. 선교의 마지막 세기라고 하는 21세기, 이제 한국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교육선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교육선교포럼

주제: 교육선교사, 차세대 한국선교의 주역이다
일시: 2월 15일(토)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문의: 070-7530-4967, www.paua.kr

권사칼럼

새해를 바라보며 참회록 -청록의 계절이 가고 은색의 내리막길

몸의 한계가 있다고 하며
순종 대신 나태와 방종을 선택한다.

균형을 고려한다면서
안이한 타협의 자리에 선다.

잘 아는 일이라고 자만하여
자신의 원대로 결정하며
처음 주신 소명이 바래 버렸다.

왜 이리 지식이 많은지 모르는 것이 없고
왜 이리도 똑똑한지 나의 지혜로 온 세계를
판단하고 하늘까지 가늠한다.

마게 닫힌 귀는 듣는 듯 마는 듯 모든 것을
하루살이로 여기고
어쩌다 귀에 들어온 낙타는 금방 잊어버린다.

입은 잠잠한 듯하나
한 번 열리면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세상 온갖 것과 살아온 세월이 쉽다 없이,
거름도 없이 덩어리 채로 쏟아진다.

간사한 눈을 흐릿하게 뜨고 끝없이 요구하길,
“오늘도 새 것을, 더 새 것을 보여 나오!”

얼마나 자주 눈이 멀고
얼마나 자주 귀가 닫혔던가!
또 얼마나 쉽게 올바른
주님께 반역하였던가!

용서를 간구합니다만

제가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까?
죄가 늘상 나를 덮으니
내게는 더러움만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제가 그냥 옆에 앉으려
주의 체취와 호흡만이라도 들이키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인, 나의 참 신랑, 구주시여!
안개 속에서 빛으로 가게 하소서.
세월이, 육신이, 습관이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늘 오늘이신 주님같이 살게 하소서.

제발 불드소서.
초점 맞는 눈으로 보고, 분별의 귀로 듣고, 은
혜와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내 눈 여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맘 여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어둠에서 건지소서.
공기 중에 있는 지혜를 막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최혜경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신앙에세이



네이라 크리스티안
목사(스페인어예배)

스페인어예배는 2018년 9월 첫 예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어린아이가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듯이 천천히 자라고 있다. 성도님들의 믿음과 예배의 방향 등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성인세례와 유아세례를 베푸는 열매

들도 거두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스페인어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요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일대일제자양육 훈련과정에 있다.

외국인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성도들의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다. 스페인어예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스페인어예배에는 한국에 방문한 중남미인 및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행자들이

많다. 선교사님들의 방문도 있어서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이곳에서 스페인어예배를 섬기다가 모국으로 돌아간 형제자매들이 믿음생활을 함께 하고자 해서 매주 주일 예배실황을 SNS(페이스북)로 방송하고 있다. 매주 주일 우리는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는 스페인어예배에서 아주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 문화사역을 통해 중남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새 생명 축제’를 개최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중남미 문화축제를 하면서 복음전파, 불우이웃돕기, 선교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스페인어예배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 20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를 드리며 함께 축제를 준비했다. 매일 스페인어예배 공동체에 공지되는 묵상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 위로, 격려, 감사, 찬양을 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크

스페인어예배의 ‘새 생명 축제’

리스마스와 연말로 인해 외국인 성도들이 본국으로 가는 상황이 생겨 외국인 성도들이 적게 올 것 같았다. 한국인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았다. 축제를 스페인어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스페인어예배공동체 성도들은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을 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연습에 참여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새 생명 축제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행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전하고, 모두 함께 즐거이 찬양했다. 새 생명 축제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도 있었다. 새 생명 축제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의 걱정과 정 반대로 예배인원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채워주셨다. 새 생명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

스페인어예배는 2020년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 시작으로 겨울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은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를 주제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동안 ‘묵상의 집’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스페인어예배공동체 및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며,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스페인어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봉사, 관심을 부탁한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스페인어예배

시간: 매주 오후 2시
장소: 도곡교육관 2층 온유홀
문의: 010-3791-270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일은 선교에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에 헌신한 교회의 기도제목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헌신한 교회라면 바로 이 기도가 모든 성도가 품어야 할 기도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제목은 “세상이 믿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21절).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제목은 “세상이 알게 하소서”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23절).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필요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추악한 문제들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제목은 “세상이 보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24 절).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영광을 보는 자는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본 자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본 자는 세상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이 기도제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앞으로 영광을 봅니다. 세상은 내가 영광을 봐야 알고 믿겠다고 하지만, 신앙의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조건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됨은 큰 조직적인 연합체로서 하나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지만 연합체나 조직으로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생명력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규칙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더욱 모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 됨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 됨입니다.

네 가지 하나 됨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23절).

예수님의 기도내용을 보면 네 가지 하나 됨이 나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됨입니다. 신비한 하나 됨입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의 하나 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 되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두 본성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하나 됨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지체된 이들이 하나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됨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 됨이 예수님의 기도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 하나 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 됨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하나 됨을 만들었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에 우리의 하나 됨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 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 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 됨이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 됨은 계속 뻗어 나갑니다. 우리의 하나 됨도 계속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됨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선교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선택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 됨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재소자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나는 소망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자만했다. 소망교도소에서 하는 목요일 집회,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성경공부, 수요찬양집회 등에 빠짐없이 나갔고, 조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을 기회가 왔다.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미 다 아는 거 하겠지.”

교만함에 젖어 으스스대던 나였는데,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의 첫 장을 펴는 순간 아는 것인데도 모르는 것이었다. 늘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찬양단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일에 열심히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꽤나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신실한 척, 율법에 얽매어 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 거지?’라며 한동안 화도 많이 났고, 도대체 내가 죄가 무엇인지 고민도 해보았다. 양육자님께



상담을 했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내게는 그저 소리 나는 팽과리일 뿐이었다. 무엇인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제 무엇인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때 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되뇌었다. 말씀을 붙잡고 비밀리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도 했다. 그때 시편 119편 33~4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20절 말씀이 크게 와 닿았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려

왔다.

“죽는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기만 해.”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말씀들이 내 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있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의 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왕좌(王座)의 다리 한쪽을 잡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때마다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정신을 차리곤 한다. 이런 내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나의 악함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다. 이제는 전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뽕뽕하게 고백해본다.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양육자님께서 왜 시간을 들여가며 이곳까지 와서 고생하시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냥 ‘대단하시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양육자님을 바라보니 그것은 순종이었다.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양육자님을 통해 알고, 보게 되었다. 이 또한 나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 나도 양육자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손민을 형제(소망교도소 재소자)

새사람사역팀(교도소사역) 봉사자 모집
봉사내용: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QT,
예배 인도 등
문의: 010-4286-0078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철희 목사(010-2937-8799)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당 B102호

문의: 홍숙희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틀온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수요오전여성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

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함)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순수매장(전여수랑 707g)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더멋진세상에 해외봉사단 모집

파견국: 우간다

모집: 2명(공공행정, 교육)

기간: 2020년 3월~2021년 3월

문의: 이가일PM(02-2271-2246),

gail@abetterworld.or.kr

열린다성경 스타디투어

이스라엘: 7월 25일~31일

터키, 그리스, 산토리니: 7월 31~8월 8일

문의: 010-4902-1022

장애인 셔틀버스 운전봉사자 모집

일정: 주일 오전 10시, 오후 1시(1회도 가능)

차량: 25인승 미니버스

목적지: 용산구 가브리엘의 집

문의: 010-3474-7635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2월 1일~29일(매주 토요일)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박민상(010-2657-1875)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요셉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

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

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 CGNTV 콘텐츠로 은혜로운 설 명절 보내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랜선 패밀리가 스튜디오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와 감사의 나눔
1월 26일 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즈



가야금연주자 이슬기가 전하는 새해의 설렘
1월 25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가수 유열이 고난 중에 만난 기쁨과 감사
1월 26일 주일 오후 5시 40분 방송

[국내 최초 TV 방영] 설 특집 영화 오두막



* 영화 오두막은 TV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살아가는 '맥'에게 찾아온 기적
1월 25일 토요일 오후 10시 / 1월 26일 주일 오후 11시 방송